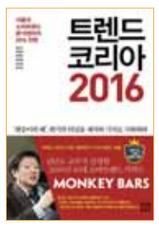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心身 독서가 보약

이번 연휴는 주말을 합치면 쉬는 날이 5일이나 된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이들 그리고 혼자만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이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 잠시 밀어두었던 책을 한권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삶에 여유를 가져다 줄 힐링과 인문 도서들 그리고 다양한 문학 도서를 소개한다.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박일호)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과 인문학적 성찰이 돋보이는 경제경영서 40권을 묶은 서평집. 북칼럼니스트인 저자 박일호가 두터운 경제경영서의 쪽수를 가볍게 자르고 유머러스하게 버무려 유쾌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책이 다루는 범주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다. 미래의 일과 노동, 트렌드에서 최첨단 경제경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각을 제시한다.

트렌드 코리아 2016(김난도 외)



김난도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6명이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6'은 첫번째 트렌드 키워드로 'MONKEY BARS'를 꼽았다. '멍키바'는 어린이 놀이터나 군대 유격장에서 볼 수 있는 구름다리를 뜻한다. 2016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 골을 원숭이가 구름다리를 넘듯 신속하게 건너, 안정된 2017년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겼다.

옛 사람이 건넨 네글자(정민)

한문학자 정민 교수가 쓴 책으로 고전에서 뽑은 '사자성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읽다 음미할 만한 옛일을 메모해두면 꼭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그와 똑같은 현실이 벌어졌다"며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황폐해져버린 세상에선 앞이 캄캄하면 안 보이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산척, 조선의 사냥꾼(이희근)

조선시대 직업 사냥꾼을 '산척'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뿌리는 백정에 닿는다. 법제상 양민이었으나 천민 대접을 받았던 백정은 주로 도축업을 했으나 일부는 늘 사냥만 했다. 산척은 조선 초에 목궁(木弓)이나 쇠뇌로 사냥을 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조총(鳥銃)으로 사냥 무기를 바꾼다. 이희근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쓴 '산척'은 한국사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들의 흔적을 찾아낸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양영은)

노엄 촘스키에서 네리 옥스먼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석학 16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했을까. 저자 양영은이 MIT에서 2년, 하버드에서 1년의 시간을 그들과 보내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은 실천적 생각법에 관한 책이다. 석학들은 스스로 묻고,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한다. 저자는 '평범한 가치를 특별하게 실천하는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배제, 무시, 물화(김원식)

한국사회는 빈부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없다.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식 박사가 펴낸 '배제, 무시, 물화'는 세 키워드로 보는 한국사회 진단 보고서다.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관계로부터 '배제'된 실업자들을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모타니 고스케)

산촌자본주의(里山資本主義)는 "잠자고 있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시스템"이다. 책에서 '里山'은 마을 숲, 마을 산을 의미한다. 일본정책투자은행 특임고문을 맡고 있는 모타니 고스케가 펴낸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꿈꾼다. 책은 2014년 신서대상 1위에 올랐고 도쿄대 생이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선정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감정의 재발견(조반니 프라체토)

'감정'에 대한 인문학적이고도 과학적인 물음과 성찰을 담은 책. 뇌 신경과학자인 조반니 프라체토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감정을 들여다본 인문심리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다. 해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인문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과학적이고도 사회문화적 시선을 견지한다.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횡단하는 전개방식은 지적 유희를 선사한다.

ㅅㅜㅍ(김소형)

2010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소형의 첫 시집. 시인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뒤섞인, 공중 혹은 지옥과 같은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흰 방'의 공간에서 시작되는 시집은 오렌지빛의 동화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무의식의 세계를 통과하고 있다. 표제작 'ㅅㅜㅍ'이 보여주는 꿈과 숲의 이미지는 '숲'이 낱낱의 음소로 분절되면서 낯설어지는 이미지를 환기한다.

'머리 쭈뼛' 추리소설로 이한치한(以寒治寒)

일반적으로 추리소설은 무더운 여름에 읽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숨 막히는 스릴과 반전, 서스펜스가 무더위를 씻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추리소설을 읽는 맛도 여름에 못지않다. 이한치한(以寒治寒)으로 추리소설 읽기만한 방편이 없다. 이번 설 연휴에는 재미있게 읽을 만한 추리소설을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재미있게 읽을 만한 추리소설 5권을 추천한다.

침묵의 절규

제16회 일본미스터리문학대상 신인상 수상작으로 제 88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 노미네이트를 기록한 추리소설. 추리소설에서 2인칭 서술은 '전도된 미스터리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범인이 누구인가' 보다 그 자신이 사체로 발견돼 오히려 피해자라고 가정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긴장과 서스펜스를 배가한다. 어느 날 맨션 주인에게서 맨션에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소설은 수많은 복선과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심리와 사회가 지닌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셜로키언

'이미테이션 게임' 시나리오 한 편으로 아카데미 각색상 등 수십 개 상을 휩쓴 그레이엄 무어의 소설 대표작. '셜록 홈스'라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주인공이자 매혹적 캐릭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매력을 이야기꾼다운 필력으로 녹여낸 작품이다. 이야기는 1900년대의 아서 코난 도일과 2010년대의 셜로키언 해럴드 화이트가 각기 살인 사건에 휘말리며 시작된다. 먼저 100년 전 이야기는 1893년 8월 어느 날, 코난 도일이 라이헨바흐 폭포 앞에서 홈스를 죽이겠노라 결심을 굳히는 데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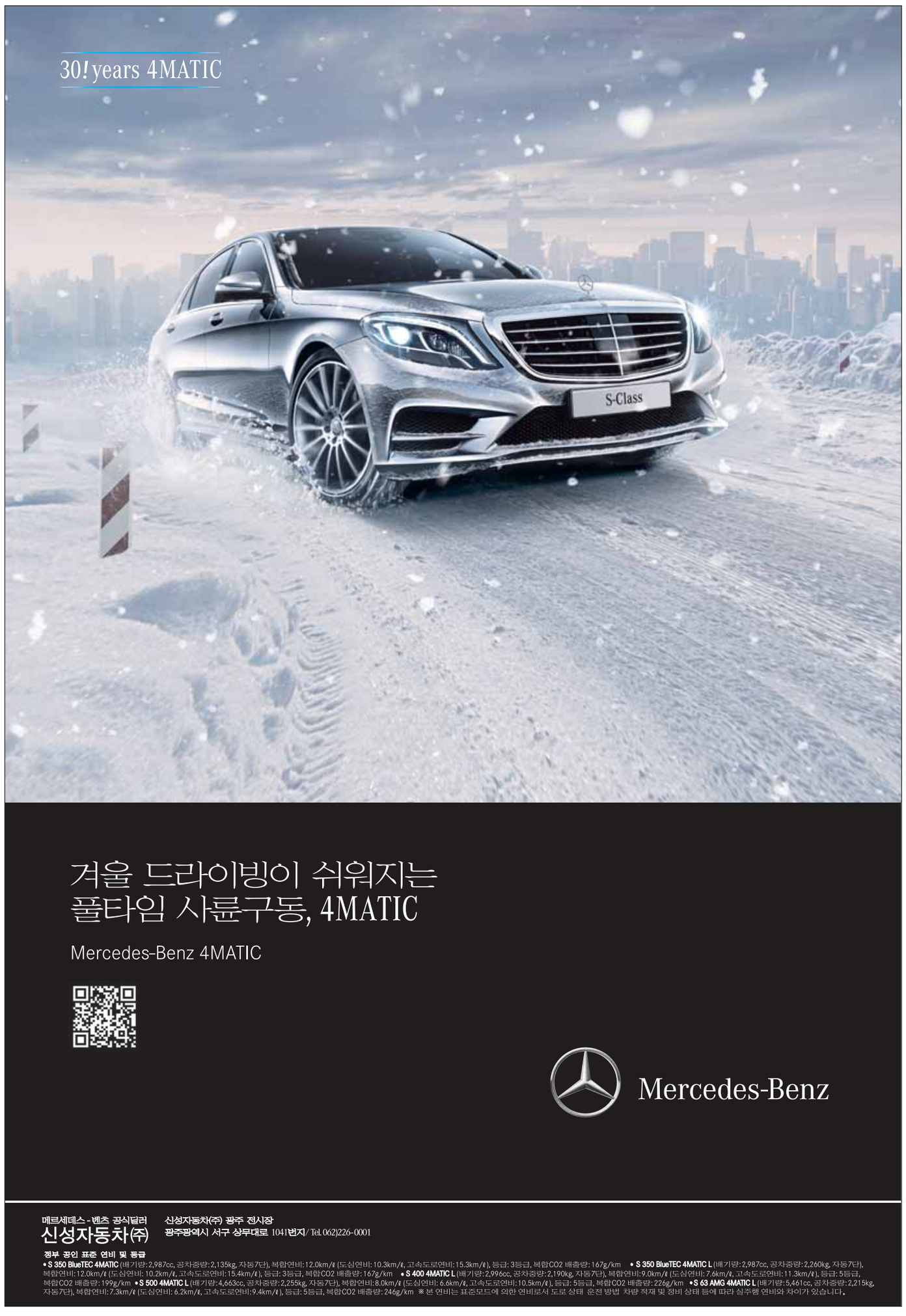
골든 애플

일본 미스터리 문학계에서 신예 기수로 첫손에 꼽히는 마리 유키코의 '미스터리 매거진' 연재작. 한 사람의 정신이상 증세가 주변인에게도 전염된다는 '감응정신병'을 모티브로,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광기의 극단을 향해 치닫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사이코 미스터리 소설이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인물과 사건이 반전을 거듭한다. 책을 읽다 보면 "대체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미쳐버린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작가는 TV 프로그램, 인터넷 댓글, 블랙컨슈머, 왕따 같은 현재 한국의 일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소재들을 적극 활용한다.

레드 스패로우 1, 2

2014년 에드거상과 국제 스릴러 작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연달아 거머쥔 신예 작가 제이슨 매튜스의 데뷔작. 언론사들이 '스파이소설계의 새로운 걸작'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작품이다. 적국의 첩보원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스패로우 학교의 졸업생 도미니카. 비범한 능력과 눈부신 미모를 타고난 그녀는 러시아의 스패로우가 되어 한 미국 첩보원을 유혹해야 한다. 표적 대상인 네이트는 고위급 러시아 스파이를 관리하며 러시아의 일급 기밀들을 입수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한번 잡으면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21세기 스파이 스릴러의 포문을 여는 화제작"이라고 격찬했다.

우리가 묻어버린 것들

2015년 에드거 어워드 최고의 데뷔작이자 2014년 최고의 미스터리 데뷔작으로 꼽히는 소설. 저자 앨런 에스킨스는 형사사건 변호사로 20년 넘게 변호사 경력을 쌓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서스펜스 매거진이 선정한 2014년 최고의 책답게 작품은 과거의 묻어두었던 진실들을 파헤치는데 초점을 둔다. 주인공 조 탤버트는 알코올중독에 조울증 환자인 어머니와 자폐증이 있는 동생으로부터 탈출해 대학으로 도망쳤다는 죄책감을 안고 산다. 전기문을 쓰는 과제를 위해 요양원을 찾아간 조는 한 남자를 만난다. 30년 전 이웃집 소녀를 살해하고 창고에서 시신을 불태운 잔인한 살인마 칼 아이버슨이라는 사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